호남신문 16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222-2580

광주복지재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성료

종사자 800여명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펼쳐

광주복지재단 유튜브통해 실시간 생방송 진행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오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827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언택트 방식으로, 광주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4명)과 광주광역시장표창(11명)을 수여했다.

특히 수상자 중 전담사회복지사 박재정(서구노인종합복지관)씨와 생활지원사 손경님(송광종합사회복지관)씨의 수상 소감을 듣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2부는 김설화 사무국장(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초빙해 전남 나주지역의 노인맞춤돌봄사업 우수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나주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실천사례와 함께 생활지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방법을 제시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유튜브를 통해 행사에 함께 한 조미진(선인종합재가센터)씨는 "올해 처음 시작된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었기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며 "한해동안 현장에서 함께 수고한 생활지원사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유나기자

강진군, 코로나우울 극복 캠페인 실시

현수막·어깨띠 등 활용해 가두캠페인 벌여 응원 메시지 전달

강진군이 최근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캠페인은 최소한의 접촉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해 가두캠페인을 벌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자살예방상담 전화 등을 안내해 많은 군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오랜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자살률 또한 서서히 증가추세에 있다.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군민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캠페인 중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민들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해 착용하게 했으며 퀴즈 등 이벤트 진행으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 기간 연장하세요"

장흥군은 2020년 국가암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자제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

적용대상자는 2020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이며, 연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연장 신청방법은 새해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보건소 진료의약팀(061-860-6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암검진은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목적이므로 가능하면 연말 내에 검진받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꼭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화순 도곡면 새마을부녀회, 경로당에 쌀·고추장 후원

십시일반 모은 부녀회비로 쌀 마련

화순군은 최근 도곡면 새마을부녀회가 쌀(20kg) 27포와 고추장(1kg) 27통을 관내 경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 나눔을 위해 부녀회원 25명은 함께 고추장을 담그고 십시일반 모은 부녀회 기금으로 쌀을 마련했다. 연말마다 지역 어르신을 챙기는 것은 부녀회의 수년째 계속되는 행사다.

이금옥 도곡면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곡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며 "코로나19에 지치셨을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복 도곡면장은 "행정에서도 마을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취약계층 난방 텐트 보급

난방여건 열악한 100가구 대상

나주시가 난방여건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외풍 차단 효과가 있는 난방텐트를 보급했다.

나주시는 겨울철 난방기기가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텐트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난방텐트는 방 내부에 설치하는 텐트형 난방용품으로 겨울철 흔히 사용하는 전기장판에 비해 보온 효과가 뛰어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전기장판의 경우 방바닥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위, 아래 온도차로 인해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난방텐트는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면서 내부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난방텐트를 직접 설치, 사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난방텐트를 보급받은 왕곡면 한 어르신은 "전기장판을 깔아도 외풍이 심해 코끝이 시렸었는데 텐트 안에 누워있으니 공기가 따뜻해져 금새 잠에 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텐트 보급에 협력해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